

# 海岸의夕陽

李 秉 穆

저녁하늘의 바다에는

白雪같은흰모래 깔니었는데

그우로러버려버려 거러가는한사람

너의갈곳이 그어데머러나?

× × × × × ×

水平線저—곳에 紫紅色노을이

아실아실 춤추는가온대로

풍실떠가는 一葉扁舟여!

아—너는장차 어데로가려나?

× × × × × ×

곳없이저어라 未知의나라로

永遠이절퍼있는 푸른하늘아래로

곳없이곳없이 흘러가면서

이처럼노래나 불너불가나

× × × × × ×

기초른世上에 알미운虛偽야

羊의웃입은 이리가사는곳

나는버서나 어—리리가오나

이世上에살사람 누구이렘가?

二九五五·九·十三日

# 죽임의사랑

一 舟

황망히그이름 끼여안고

가많이그일팔 들여다보았다

사랑이여 苦痛에서드른사랑이여

나의품에서 너는깨어나거라

우라도밝은빛 엮기爲하야

가장구나 사랑이여 가장구나

볼수지어다 언더케 많이들

天上으로날너가는가를

황망히그이름 끼여안고

죽임을가상에풀었다

그이는永遠히잠들었네

또다시그눈을뜨지못한다。

# 네 불꽃들

化 竹

당신과내가天使王國에살때

흰모래깔닌시내가에서

빨가버슨빨가송이로작란치면서

이리뛰고저리뛰며안고씨러지든

그리케도조흔넛은넛들이

아—이제는피도변하였소구려?

당신과내가어렸을때에

九月微風이山허리에감돌면

대바구니돌고방주러다니며

맘대로노래하고춤추든

그리케도조흔넛은넛들이

아—이제는왜그리쓸쓸한가요?

당신과내가天眞스릴때

떨에하얀꽃피고山에벽곡새울면

부리진쇠로막칼을가지고

오손도손속살거리며

춤을춤이며나불을캐든

그조흔넛들이이무슨짚일가!!

당신과나의한아인노리력이오

당신과나의한아인복음자리든

그리케도조흔넛은넛들이